구역성경공부 교재
2024. 4. 5. (금)

고린도전서(12)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 본문
고전 4:6-13

■ 시작 찬송가
270장(통 214장)

■ 헌금 찬송가
430장(통 456장)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고린도전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우리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과 조직도 중요하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샌가 삶이 무질서해지곤 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질서가 있는 삶이 됩니다.

(1) 믿음의 본

바울은 '나와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가정교사들은 미리 적어둔 글 위에 종이를 얹고 희미하게 보이는 본을 따라 글씨를 적게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예수의 본, 바울과 아볼로의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전 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요 13: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계 안에 있어야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 65: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울과 아볼로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하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1) 케리그마(κῆρυγμα)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2) 디다케(διδαχή)
교훈과 책망으로 가르치는 사역
3) 디아코니아(διακονία)
사람들을 고치시고 섬기는 사역

(2) 자랑하지 말라

바울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스스로 가진 것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받았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엡 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서로에게 자랑하며 경쟁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진 것을 자랑하면 시기를 받고 다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랑의 공동체가 아닌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고전 4:7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전 12:4-7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3) 이미, 그러나 아직

바울은 '너희는 이미 … 왕이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아직'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왕의 모습에 빗대어 풍자하며 책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여기며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고전 4:8 너희가 이미 배 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 3:12-14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미, 그러나 아직(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구원이 남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미의 신앙'만 갖고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겨선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가야 할 길,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딤후 4:6-8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빌 2:12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겸손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의 몸 된 교회로 부름 받은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며, 교회와 이웃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살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 '이미의 신앙'

다윗은 다 이루었다고 여기며 전쟁터가 아닌 왕궁을 거닐 때 밧세바를 보고 유혹에 빠졌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나라가 부강하여 많은 궁녀를 두고 살다가 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미'의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아직'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8.03.14. 수요기도회 중)